

현지조사 후기

조규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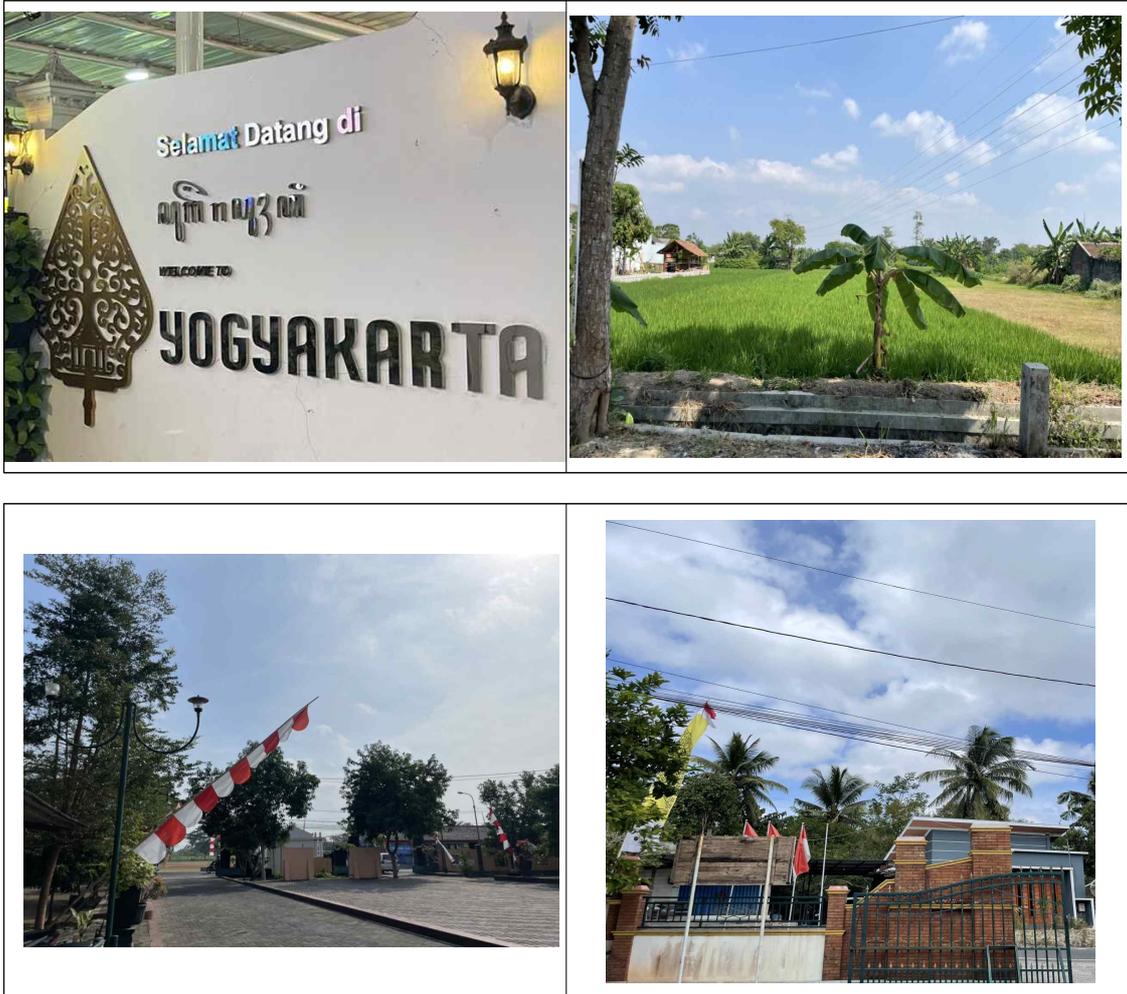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석사수로

<2024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돼, 2024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석사 학위 논문을 위한 현지조사에 다녀왔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Yogyakarta)의 마을 단위 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고자 세 곳의 마을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의 마을 단위 참여예산제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노동자당을 중심으로 시작해, 이후 여러 국가로 확산됐는데 그중 인도네시아는 2004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참여예산제를 법제화했다. 그전인 2000년, 인도네시아의 3~4개 지역에서 마을 단위의 연간 발전 계획 협의가 파일럿으로 시작됐다. 이후 마을에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참여예산제가 점차 확대됐고 마을 재정 관리권자로서 마을 이장의 영향력이 강력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의 마을 단위 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내부 동학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중 족자카르타를 연구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하나의 특별 주로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귀족 가문의 지위가 강하다는 논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역에서의 마을 단위 참여예산제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준비해 간 질문들을 활용해, 마을 단위의 참여예산제가 마을마다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마을 관계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마을 감독관(village supervisor)을 만나 인터뷰하며 마을 외부인으로서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림 1> 족자카르타



현지조사 당시에는, 본래 생각해 갔던 틀(framework)을 각 마을의 사례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들었다. 마을마다 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지로 조사를 나왔기에 해당 틀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보며 재구성해 볼 수 있었다.

현지에서도 인터뷰 일정이 여러 번 바뀌게 되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논문에서만 보던 마을에 실제로 와서, 직접 마을 관계자를 만나 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인터뷰가 연기되도, 현장에 있기에 경험할 수 있는 일들로 가득 찼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한 곳의 이장님께서 이번 인터뷰가 충분하겠느냐고 물어봐 주시며 마을에서 개최될 행사에 와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다. 이처럼 현지조사 기간 동안, 현장의 중요성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2024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에 감사드린다.